

## 일본당뇨인 모임의 어제와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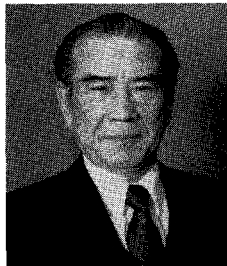
일본당뇨병협회 산하에는 약 600여개에 달하는 환자회가 있다.

1989년 6월 필자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사단법인 일본당뇨병협회를 방문하였을 때 사무국장(伊藤正義)으로부터 『일본당뇨병협회 30년사』라는 책자를 선물받았다.

사무국장 안내로 이사장을 소개받고 인사드렸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이사장에 대한 이력을 들었는데 일본정부 후생성의 차관을 역임하였고, 퇴임후 당뇨병 합병증으로 제생회(濟生會)병원에 입원, 치료한 것이 계기가 되어 병원 단위 환자모임의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인유조석지화복(人有朝夕之禍福)』이라더니 사람의 인생이란 알 수 없는 것이다.

오랜 경륜과 관록으로 운영의 묘를 다하여 환자회가 발전함에 따라 소문이 퍼져 환자회의 중앙회 격인 사단법인 일본당뇨병협회 이사장으로 피선된 이후 28년 동안 봉사하여 협회를 반석 위에 올려 놓은 공로자라는 놀라운 사실



조 용 길

인제대학교 부속백병원  
엄나무회 회장

에 경의를 표해 마지않았다.

사단법인 일본당뇨병협회의 발족 경위를 질문하였던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설명이었다.

1. 1960년 구마모토 대학병원 미무라(三村)교수가 당뇨병환자에게 치료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설명 방법 보다는 다수 동시 질의응답 방법이 보다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즉 당뇨병에 대한 이해, 혈당조절 방법, 합병증 예방 등의 교육적 효과가 컸다는 것이다.

2. 미무라 교수는 대학동기인 후쿠오카 대학에서 근무하신 히라타 교수에게 이와 같은 시행결과를 알리고 실시할 것을 권유했다.

### ※ 참고

일본이 서양의학을 도입할 때 독일식을 채택했는데, 그 뿌리가 깊어 오늘날에도 독일식 의료방법이 약 60%를 점하고 있는데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도 의사와 환자의 직접 진료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다. 한편



해방후 일본에도 영미(英美)식 의료방법이 도입되고 있으나, 약 40%정도라고 하여 당뇨병치료에 있어서는 의료진(의사·간호사·영양사·약사)와 환자측(환자·가족)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여 전문성을 살리는 종합적이며 입체적인 교육을 통하여 치료효과를 높일 뿐더러 혈당조절이 순조로워지며 합병증 진행을 억제하는 등 예측이상의 성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3. 이와같은 일련의 시행결과가 구주(九州)지역의 학술세미나에서 보고되므로서 다른 병원에서도 실시하게 되고 이어서 전국 학술세미나에서 보고되어 드디어는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하게 되었다 한다.

4. 즉, 사단법인 일본당뇨병협회는 중앙에서 먼저 조직되어 지방으로 보급된 것이 아니고 지방에서 먼저 발족되고 중앙으로 확대해 갔다는 결론이었다.

5. 1989년 당시 사단법인 일본당뇨병협회의 산하에 약 600여개에 달하는 병원 단위 환자회(당노인의 모임 : 회원은 의료기관, 의료진, 환자와 그가족, 사회봉사자 등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회비와 찬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가 상호유대강화, 정보를 교환하면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경이적인 설명이었다.

사단법인 일본당뇨병협회는 그동안 많은 업적을 거양했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가) 협회가 정부에 건의하여 1990년부터 연간 약 2억엔(원화 16억원)의

보조비를 받고있다.

- (나) 협회 회지 발행, 당뇨병주간 주최, 소아당뇨병교육 지원, 총회개최, 세계총회유치.
- (다) 당뇨병 치료의 필수품인 의료품과 의료기기 등의 전액 보험처리
- (라) 지방과의 친선도모, 유대강화를 위해 매년 총회장소를 지방으로 이동, 개최한다.
- (마) 협회는 정부기관, 의료기관, 제약회사, 식품회사, 의료기기회사, 잡지사 등과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각 병원마다 당뇨인의 모임이 결성되어 당뇨병교실 연합회를 구성하여 조직화된 단체의 역량으로 다음과 같은 당뇨인을 위한 방안들이 구현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① 훌륭한 시설에 친절한 의료진의 수준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 ②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업체의 감면으로 염가 구입할 수 있게 하며
- ③ 장차 전액 보험처리하게 하고
- ④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구의 5%를 점한다는 당뇨인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여 국민적인 질병퇴치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선처 바라며
- ⑤ 당뇨인(예비 당뇨인까지 합하면 인구의 7%해당)들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기를 바란다.